

## <서평>

#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Mikael Sjoeberg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06, x+251p.

이영미\*

## 1. 시작하면서

미카엘 스제버그(Mikael Sjoeberg)의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는 입다 설화에 나타난 본문의 폭력성을 사사기 본문(삿 10:6-12:7) 자체의 주석과 입다 이야기를 다룬 고대 문헌, 현대 문헌을 설화 비평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성서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준 뒤, 전체적인 논의를 성서 해석의 윤리 문제로 이끌어간다.

책은 서론과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저자는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본격적인 설화 비평적 주석 작업은 사사기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제1장), 두개의 초기 유대 문헌인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과 *Jewish Antiquities*(제2장), 음악의 한 장르인 헨델의 *Oratorio*(제3장), 20세기 문학작품인, *A Mighty Man of Valour*와 *This Evil Earth*(제4장)로 이어진다. 마지막 5장은 앞의 2-4장에 걸친

---

\* 한신 대학교 교수, 구약학

분석이 성서 해석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으며 성서 해석의 윤리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 책에서 스제버그는 설화 비평의 전문적인 방법으로 각 본문들을 세밀하게 분석,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일이 쉽지 않고, 20세기 서구 소설인 *A Mighty Man of Valour*와 *This Evil Earth*은 한국 독자에게는 낯선 작품들인 점을 감안, 이 서평에서는 두 현대소설의 분석 소개는 생략하였다.

## 2. 책 내용 소개

### 2.1. 성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서와 문화의 만남

스제버그는 이 책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최근 성서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한다. 먼저 성서 주석가들 사이에서 해석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성서 주석은 이제 학문적 관심영역을 넘어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해석학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둘째, 최근에 서구에서는 성서 연구가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공공정보학(science of public information)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셋째, 성서의 문화적 기능, 혹은 문화 속의 성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전으로서 성서가 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재구성되며, 문화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한다. 이러한 성서 해석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서 해석의 윤리적, 정치적 영역에 관한 주석적 논의에 공헌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밝힌다(8).

특별히 본문을 입다 설화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자의 성(gender)에 관한 관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입다 설화가 르네

상스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만 500개의 예술작품에 영감을 준 이야기로 그 영역의 다양성을 대표할 만한 본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입다 설화는 성서 본문이 지니는 폭력성의 윤리적, 실존적 딜레마가 다른 작품들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 혹은 재구성되어 윤리적 문제를 극복, 개선해나가는지 살펴볼 좋은 자료가 된다.

스제버그가 다양한 장르의 본문들을 분석하는 틀은 설화 비평(narratology)이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설화 비평은 설화(the narrative)와 설화 방식(the act of narrating)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제라드 제네트(Gerard Genette)의 설화 비평을 기본으로 한다. 그밖에 미크 발(Mieke Bal), 블라디미르 프롭(Vladimir Propp), 클라우드 브레모트(Claude Bremond), 알기르다스 줄리언 그라이마스(Algirdas Julien Greimas) 등의 이론이 인물 성격 묘사, 설화자의 기능 등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저자가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 2.2. 사사기 10:6-12:7에 내포된 네 가지의 모호성(ambiguity)

제2장에서 스제버그는 사사기의 입다 설화를 설화 비평으로 분석한 후 본문에서 드러나는 네 개 영역에서의 모호성을 밝힌다. (1) 설화 전개에서 일관성(coherence) 결여, (2) 이야기 전개 주체(subject)가 불분명하다, (3) 이야기에 대한 설화자의 입장(focalization)이 불분명하고, (4) 등장인물들의 성격 묘사(characterization)가 모호하다. 부연 설명하자면, 성서의 입다 설화에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잘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설화 속에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는 등 일관성이 모호하다. 더욱이 암몬족에 대한 승리가 입다 설화의 중심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스바로 돌아와서 희생제를 드리

는 것이 설화의 가장 강조된 일화로 등장한다. 이런 요소들은 입다 설화의 내적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설화의 절정이 어디인지 불분명하게 만든다.

둘째, 등장인물의 역할이 모호하다. 가령, 입다는 야웨의 도움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 맹세를 하는데, 야웨는 입다가 자신의 맹세를 서약하기 전에 그에게 이미 영을 내렸고, 야웨는 입다의 맹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다. 끝으로 딸이 아버지에게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것은 서약이 무조건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세 번째 설화자는 다른 사자들에게 내리는 평가와 달리 입다에 관해서는 칭찬도, 힐책도 하지 않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대신 설화자의 관심은 딸의 성(sexuality)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설화의 초점이 설화전체에서 외부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설화자의 분명한 암시가 없어 설화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설화가 희극인지 비극인지, 이 설화가 입다, 딸, 백성들에게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의 특성 묘사이다. 입다는 전쟁 영웅이지만 서출이다, 자신의 부족에게는 쫓겨났지만 한 부족의 우두머리이다, 지도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처지이다. 익명의 딸은 희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협상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여성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끝으로 야웨는 침묵으로 질서를 보존해 주는 자와 버림받은 대상과 궁극적인 힘 있는 자 사이의 판에 박힌 정형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의 모호성에서 스제버그는 성서 외 자료들을 분석하는 전제가 될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도출해낸다.

첫째,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있는가?(coherence)

둘째, 누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중심 존재인가?(subjects, driving force)

셋째, 설화의 사건들에 대한 설화자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무엇인가?(focalization)

넷째, 중심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는 설화자가 사건들의 함축적인 의미를 평가하는 데 어떤 의미를 띠는가?(characterization)

### 2.3. 성서 외 자료들에 대한 설화 비평 분석 사례

#### 2.3.1.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39-40의 입다 설화의 재구성

첫 번째 비교되는 성서 외 자료는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39-40(이하 LAB)이다. LAB는 성서를 다시 기록한 책들로, 그 내용을 의역(paraphrase)하거나 주석(commentary)하기보다 타르굼보다 좀 더 자유롭게 성서 본문들을 재구성한다. LAB와 역대기서의 유사성은 두 문헌에서 모두 족보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도, 찬송, 시 등과 같은 예전적인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대기는 LAB가 끝나는 시점(LAB의 역사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다.)에서 시작하고 있으므로 LAB가 역대기서에 앞선 보충 자료가 아닌가 추정되기도 하지만 스제버그는 두 문헌에서 목시 자료나 전설 자료들의 사용의 방법과 범위를 살펴볼 때 이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성서에서 역대기서는 LAB의 문학 유형과 가장 근접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LAB의 특징은 성전, 희생 제의법, 계약, 십계명, 신정론, 종말론, 천사론 등과 같은 신학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입다 설화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희생 제의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세일라(Seila)의 희생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주고 있다. 우선 LAB 39-40의 내용의 윤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39.1).

2. 형제들이 입다를 추방하다(39.2).
3. 이스라엘과 입다가 백성의 지도권을 놓고 협상하다(39.4-5).
4.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도록 소집하다(39.6).
5.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39.7).
6. 하나님이 입다에게 힘을 부여하다(39.8).
7.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를 서약하다(39.10).
8. 하나님이 입다의 맹세의 결과를 결정하다(39.11).
9. 입다가 암문을 무찌르다(40.1).
10. 세일라가 입다를 만나다(40.1).
11. 세일라가 입다에게 서약을 실천하도록 간청하다(40.3).
12. 세일라가 입다와 휴식의 기간을 허락하도록 협상하다(40.4).
14. 세일라가 스텔락 산(Mt. Stelac)으로 탄원을 위해 떠나다(40.4).
15. 세일라가 입다에게로 돌아오다(40.8).
16. 입다가 세일라를 희생제물로 바치다(40.8).
17. 이스라엘이 세일라를 기억하며 연례 애도의 의례를 제정하다(40.8).

설화 전개 of 일관성에서, LAB의 입다 설화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삭제하여 성서 이야기보다 좀 더 통합적인 설화를 전개시킨다. 또한 설화를 전개하면서 희생 제의 암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미스바로 돌아오는 장면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길게 첨가된 세일라의 서정적인 탄원으로 LAB는 희생 제의를 특별히 강조한다.

성서와 마찬가지로 LAB 입다 설화에서도 설화 전개를 주도하는 단독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서의 모호성들이 상쇄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모호성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입다는 신앙심 없는 서약에 대해 비난받고 동시에 주체로서의 힘이 약화된다.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쳐 지켰다는 세일라의 자원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지만 세일라의 탄원에 표현된 노골적인 항거는 상황을 복잡하게 그려낸다. 하나님의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희생 제의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로 몰아가는 건 하나님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 LAB의 정황을 고려할 때 다소 역설적으로 보인다.

LAB는 성서의 경우보다 설화자의 평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설명을 곁들이는 설화자의 기능은 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일라도 그 기능을 다소 담당한다. 입다의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은 구체적으로 입다가 그러한 맹세를 하고 나면 개 같은 부적절한 대상이 마중 나와 불결한 희생제물을 바치게 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딸의 희생은, 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소중함’ 것으로 간주되고 그녀의 희생 제의를 종교적 전통의 빛에서 설명하여 이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성격 묘사에서 입다는 낮게, 세일라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입다는 사사들 중 최하위 사사로 평가받으며 즉각적인 하나님의 질책은 입다를 우상 숭배자와 동일한 범주로 치부해 버린다. 반면, 세일라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세일라는 암시적으로는 사사 드보라와 비교되면서 우호적인 판결을 받으며,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평판을 얻는다. 끝으로 하나님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그들의 내적인 동기들에 대해 평가하며 사건의 전개방향을 급진적으로 변경시켜 놓는 성난 속량자이며 파괴자로 묘사된다.

### 2.3.2. *Jewish Antiquities*(이하 『유대 고대사』)의 입다 설화 재구성(2장)

두 번째 비교되는 초기 유대문헌인 『유대 고대사』는 66년 유대 전쟁 동안 갈릴리 지역의 유대 저항군의 지휘관이었던 요세푸스의 보존된 네 개의 작품 중 가장 큰 대작이다. 20권의 책으로 창조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 고대사』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변호를 목적으로 쓴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10-12에서 칠십인

역이 성서 설화를 재배열한 전례라고 언급하면서 이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유대 고대사』는 성서 본문과 함께 다른 자료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성서 본문의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해도 사해 문서의 폐사림처럼 주석을 하거나, 미드라쉬처럼 인용된 성서 구절을 설명하지 않는다. 『유대 고대사』 5.255-270에 나오는 입다 설화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1.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저버리다(5.255).
2. 암몬이 히브리인들을 공격하다(5.255).
3.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다(5.256).
4.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다(5.256).
5. 갈라디티스(Galaditis) 백성들이 입다와 지도권에 대해 협상하다(5.258-260).
6. 입다가 암몬인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다(5.262).
7.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를 서약하다(5.263).
8. 입다가 암몬인을 무찌르다(5.263).
9. 딸이 입다를 만나다(5.264).
10. 딸이 입다에게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다(5.265).
11. 입다가 딸의 희생제물로 바치다(5.266).
12.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공격하다(5.267).
13. 입다가 에브라임을 무찌르다(5.269).

『유대 고대사』의 입다 설화는 성서의 내용보다 짧지만 LAB에 비하면 성서의 본래 내용에 더 가깝다.

설화 전개에 일관성과 관련하여, 『유대 고대사』는 암몬과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을 논리적으로 두 개의 중심 사건으로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지만 희생 제의의 목적은 모호한 채로 남겨둔다. 희생 제의 경우, 설화의 순서와 리듬은 어디에 중심이 놓여있는지 제시하지 못한

다.

『유대 고대사』에서 설화를 전개해나가는 주체는 입다 자신이다. 하나님을 전쟁 이전에 입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전쟁동안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여 맹세의 책임이 입다에게 있다고 분명히 보여준다. 입다 자신은 적과의 전쟁을 협상을 통해 지연시키기보다 전쟁을 바로 선포해서 싸움을 일으켰다. 기타 백성과 딸, 길르앗의 지도자들의 역할이나 영향은 대폭 축소되어 나온다. 딸이 아버지에게 탄원하는 대목도 언급되지 않고, 설화 속에는 그녀가 산으로 떠나고 돌아오는 여정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다.

설화자의 입장도 매우 분명하다. 희생 제의는 하나님과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된다. 장황한 설명을 통해 설화자는 비극적 결말은 입다의 탓이며, 이는 특별히 그가 경건성과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로 설명한다. 지혜와 경건은 그리스 고전문학에서 영웅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 덕목이었다.

인물 성격 묘사에서 입다는 더 애매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입다는 최하 평가를 받은 사사로 묘사되고 설화자에게 질책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배경에 관한 모든 불명예스러운 요소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는 성서에서보다 더 독립적인 주체로 나타나며 그의 연설은 그가 권력행사를 보다 일관되게 행사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하여 『유대 고대사』의 입다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설화는 그의 딸에 대해 거의 관심을 쏟지 않고 있으며 그녀는 성서보다 여기서 더 익명의 존재로 전락된다.

### 2.3.3. 오라트리오<sup>1)</sup>에 나타난 입다 설화의 재구성

---

1) 종교, 또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독창·합창·관현악을 위한 대규모 악곡을 이르는 말이다. 대부분은 보통 성서를 기초로 하며, 장면에서 장면으로의 전개에 필요한 해설을 다양한 성부들에 의한 레치타티보가 담당하며 이러한 레치타티보에 이어 아리아와 합창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헨델의 메시아와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있다.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이르는 동안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오라트리오가 100개가 넘는다. 오라트리오는 두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짧은 설화로 등장인물이 몇 명만 나온다.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이 많은 긴 드라마 형태이다. 오직 두 개의 오라트리오만 아직까지 공연된다. 하나는 “Giacomo Carissimi”의 입다(1650년)이고 다른 하나는 “George Friedrich Handel”의 입다(1751년)이다. 긴 설화 내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작품은 세 시간 동안 진행되며 성서에 없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다수 나오고 설화의 내용도 많이 변화되어 재해석된다.

헨델의 오라트리오 주제들은 히브리 성서나 외경에서 도출되었다. 12편이 히브리 성서에서 3편이 외경에서, 『메시아』는 신약 성서와 시편들에서 주제를 가져온다. “Theodora”만은 예외다. 그 중 네 편의 오라트리오, “입다, 드보라, 삼손, 여호수아(오드니엘과 약사의 사랑 이야기)”는 사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처럼 헨델이 성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당대 영국의 배경은 관객들이 교회에서의 낭송이나 일반 잡지에서 인용들로 성서 설화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모렐이 헨델의 오라트리오를 편곡한 가극(libretto)의 줄거리는 성서의 설화보다 짧고 덜 복잡하다. 헨델의 오라트리오에 재구성된 입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불(Zebul, 입다의 형)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한다(3).
2. 사람들이 야웨께 회개를 서약한다(4).
3. 제불이 입다와 협상하여 백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한다(5).
4. 야웨가 입다에게 능력을 실어준다(15).
5. 입다는 야웨께 맹세한다(15).
6. 암몬이 길르앗의 조약을 거부한다(23).
7. 입다가 암몬을 물리친다(24).
8. 아이피스(Iphis, 입다의 딸)가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는 맞는다(37).

9. 제불, 스톨지(입다의 아내), 하몰(딸의 연인)이 입다에게 맹세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다(45).

10. 천사가 희생 제의를 중단시킨다(55).

가장 중요한 변화라면 성서의 비극적 내용이 희극으로 변화된 점이다. 입다의 맹세는 반드시 딸을 희생시켜야 하는 서약이 아니라 딸을 죽이지 않고 헌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전쟁에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는데 암몬이 길르앗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동기 설명과 입다가 케루빔과 세라핌의 천사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묘사가 첨가된다.

설화는 일관성 있게 전개된다. 설화가 비극(애도)에서 희극(행복)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전개도 통일성이 있다. 오라토리오에서 유일하게 성서의 주제가 발전된 것은 미스바로 돌아오는 대목인데, 여기서 천사의 개입이 길게 첨가되고, 서약의 결과에 대한 입다의 고민이 음악적으로 가장 긴장감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오라토리오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중심 힘은 하나님이다. 그 신은 입다가 맹세하기 전에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하늘의 군대를 통해 그의 전투를 도우며 불필요한 희생 제의에서 그의 딸 아이피스를 구해 준다. 그리고 모든 극화된 등장인물들은 입다의 보조자로 기능한다.

설화자가 부재한듯 하지만 제불과 하몰이 설화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 전쟁은 정당화되고 그리하여 전쟁을 시작한 여호와와 이를 수행한 입다의 정당성은 증명된다.

네 명의 등장인물의 성격묘사는 미묘한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는데 성(gender)과 관련하여 특별히 그러하다. 제불과 아이피스는 입다를 이상화시키지만 소톨지는 그를 비방한다. 입다는 하늘에는 순종하지만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에 번뇌한다. 그리하여 그는 전쟁의 영웅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화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예 사라져 버린다.

## 2.4. 성서 외 자료들에 나타난 입다 설화의 비교 분석과 변형의 전략들

마지막 5장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사기의 입다 설화에서 발견된 네 개의 모호성이 성서 외 작품들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비교한다. 그 결과 저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 변형 전략들을 제시한다.

### 2.4.1. 사건 전개에서 일관성이 발견된다

성서 외 자료에서는 사건 전개가 대체로 일관성을 보여준다. 가령, 성서 외 모든 자료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갈등을 모두 약화시키고 있다. 오라토리오의 경우 신과 인간의 갈등은 간접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백성들과 제물 사이의 갈등으로 순화되어 묘사된다. LAB에서 이 갈등은 완전하게 축소되고, 『유대 고대사』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부한 것을 제외한 성서의 모든 갈등의 사건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희생과 관련하여서는 오라토리오만이 희생 제의를 완전히 생략하고 이를 헌납으로 바꾸어 놓는다. 『유대 고대사』에는 희생 제의가 언급되고 있으나 딸이 잠깐의 시간을 요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말이나 움직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대 고대사』에서 희생 제의는 개인의 서약에 의해 이루어진 불행으로 간주된다. 성서와 대조적으로 LAB에서 희생 제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야기 속에 기념 제의를 포함시킨다. 두 개의 전쟁 묘사에서 발견되는 모호함에 관해서, 오라토리오나 LAB은 에브라임 전쟁은 생략하고 있고, 『유대 고대사』는 에브라임 전쟁이 암몬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로 묘사된다.

성서와 다른 작품들 사이의 공통된 핵심적인 네 가지 사건은 입다와 길르앗 인들과의 협상, 입다의 맹세, 암몬 전쟁에서의 승리, 딸과 입다의 만남으로 축약된다. 스테버그는 이 네 가지 사건이 반드시 언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첫째, 길르앗과의 협상은 입다를 불법적 추방인에

서 합법적인 사사로 전환시키는 사건이며 이를 통해 입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 둘째, 맹세는 다른 사사 이야기와 달리 입다 설화의 독특성을 드러낼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암몬과의 승리는 맹세를 지켜야할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딸과의 만남은 맹세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2.4.2. 주로 입다와 하나님이 설화를 전개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네 명의 등장인물들-입다, 야웨, 백성들, 딸-은 설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주체들이다. LAB에서는 하나님이, 『유대 고대사』에서는 입다가, 오라토리오에서는 여호와가 스스로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체로 나타난다. LAB와 대조적으로 오라트리오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천사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고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놓는다.

#### 2.4.3. 성서 외 자료에서 설화자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전개되는 이야기에 대한 설화자의 직접적인 평가가 없는 성서의 모호성은 성서 이외의 자료들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LAB와 『유대 고대사』에서는 설화자의 비난이 언급된다. LAB에서는 하나님이 입다의 맹세를 비난한다. 『유대 고대사』에서 설화자는 희생 제의가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비추어볼 때도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는다.

#### 2.4.4. 성격 묘사가 다양하다

초기 유대 문헌에서는 입다는 소 사사들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사사이며 신랄한 비평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LAB는 입다의 딸, 세일라

의 역할에 적극성을 부여한다. 세일라는 맹세에 대하여 항변하고 애도 제의의 창시자로 묘사되고 심지어 이삭과 비유되기도 한다. 『유대고대사』에서는 딸의 역할을 극도로 축소시켜 그녀는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전락한다. 오라토리오는 네 명의 중심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입다는 전쟁 영웅의 표본에서 옴과 같이 시험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몰(딸의 약혼자)은 입다와 반대의 모습, 약하고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아이피스, 입다의 딸의 역할은 극대되어 주체가 객체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아이피스 자신의 행동들은 오히려 그녀를 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녀는 강하게 항거하는 엄마와 달리 아버지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한다.

결론적으로 성서 외 작품들에서의 전반적인 경향은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내적인 일관성이 대폭 증대되었고 희생 제의에 대한 강조가 더 높아졌다. 성격묘사에서 다양성이 드러났다.

#### 2.4.5. 모호성을 해결하는 전략들

성서 외 작품들은 성서의 입다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성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의 난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을 스케머그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1. 비난(condemnation): 해석자는 설화의 특정 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부가한다.
2. 동일화(identification): 해석자는 설화의 특성요소들을 인지하고 비난과 달리 그 요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3. 찬양(glorification): 설화의 특정 요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4. 이질화(alienation): 설화의 특정요소로부터 거리를 둔다.
5. 삭제(censure): 설화의 특정 요소들을 거부하거나 제거한다.

이상의 전략들 중에서 비난과 동일화(1, 2)는 설화자의 직접적인 평가에서 주로 발견되는 전략이다. 찬양과 주변화(3, 4)는 성격묘사와 연관이 있다. 마지막 책망(5)은 일관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LAB와 『유대 고대사』는 입다는 직접 비난(1)한다. LAB는 딸을 찬양한다(3) 오라토리오는 딸을 찬양(3)하고 희생 제의는 삭제(5)한다.

스제버그는 이상의 전략들은 고대의 편자들이 성서(정경) 안에 내제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현대 독자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그는 두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던진다.

1. 독자가 설화 속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전략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2. 어떤 면에서 전략들이 독자에게 변화를 위한 자극을 주고 있는가?

위에서 언급된 전략들 중에서 비난(1)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고 어느 경우에서든지 입다에게는 꼭 적용되는 전략이었다. 비난의 전략은 희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입다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옹호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유대 고대사』에서 비난의 전략은 필수 불가결한 전략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유대 고대사』와 LAB 모두에서 입다의 잘못은 하나님과 법을 어긴 것으로 비난받지 딸의 처지와 관련해서는 비난의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난의 전략은 딸에게도 적용된다. 현실세계에서, 가령 법정에서 남성 가해자가 강간범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희생자에 대한 비난이 주어진다. 이처럼 희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에서 희생자로 초점이 옮겨져 마치

딸이 충분히 항변하지 못해서 결국 희생을 치르게 된 것처럼 암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해석의 전략은 힘없는 희생자에 대한 배신이며 힘 있는 자에 대한 충성을 암시하는 해석이다.

동일화의 전략(2)은 비난보다는 인지로 이루어진다. 성서 외 자료에서 어느 것도 딸과의 동일화를 통해 설화를 재구성한 예는 없다. 모두 입다와 동일화하여 읽고 있으며 가부장 사회에서 우리는 남성 ‘영웅’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설화를 읽도록 교육받아 왔다. 여성 신학자들은 기억과 애도를 통해 여성의 희생이 기억되고 그들의 존재가 되살아나 힘을 발휘한다고 자주 지적한다. 설화 속에 잊힌 딸을 기억하여 현대 독자들은 그녀를 설화 속에서 주변화된 그녀를 속량하게 된다.

찬양의 전략(3)은 긍정적인 평가를 뜻한다. 대부분의 여성 신학자들에게 LAB나 오라토리오의 경우처럼, 이 전략을 딸에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딸을 칭송하여 설화 속에서 억압되어 익명으로 남아있는 여 주인공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영예를 안겨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한 전략은 1970년대 제2세대 여성학자들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전통적인 작품들에서 여성의 긍정적인 공헌들을 발견하고 여성들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추어내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이 때로는 가부장제에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찬양하여 오히려 여성 억압적인 해석 결과를 낳는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단의 찬양 전략으로 모험론적 해석을 들 수 있다. 입다의 딸을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권력관계를 고려해볼 때 힘없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입다의 딸과 전능자의 아들로 자신의 삶을 인류를 위해 희생한 그리스도와는 동일하지 않다. 여성의 자기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행동을 영예롭고 옳은 것으로 찬양하는 전략은 성서의 설화를 악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입다에 대한 찬양의 전략은 이미 시락서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인다. 동일화와 마찬가지로 입다의 찬양은 힘의 상징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해석의 전략은 많은 남성학자들의 글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질화의 전략(4)은 독자들에게 사이를 두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입다의 딸에게 적용될 때 딸은 희생자로 비난받고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 배경적 존재로 사라지게 된다. 이 전략은 성서의 여성들, 특별히 광고나 시가 예술에 나오는 ‘타락한 이브’의 경우 잘 드러난다. 딸에 대한 이질화의 전략은 독자들의 관심을 남성 주인공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실제 세계에서의 경우, 심리학적 논의에서 폭력당한 여성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묘사된다. 전쟁의 논리에서 적들은 살생이 덜 비참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 비인간화를 통해 이질화된다. 성서 외 자료 어느 곳에서도 입다의 묘사에서 이질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삭제(5)의 전략은 두 개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희생 제의의 삭제는 아버지의 책임감과 딸의 고통 모두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힘의 기제를 분명하지 않게 만들고 가부장 질서에 어떤 도전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전략은 아버지가 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질서를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오라토리오는 첫 번째 대안의 예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은 입다를 비난하고 딸을 죽음에서 구해준다. 이 경우, 헌신은 해방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엘리자베스 캐디 스텐톤은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하였다. 스텐톤은 딸이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맞서서 맹세에 대한 유대법의 문제들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행동의 방향을 바꾸어 제시한다. 따라서 삭제의 전략은 남성의 권력을 은폐하여 본문을 속량하려는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기도 하고 지그의 권력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대안을 재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5. 저자의 마지막 자기 성찰: 해석의 다양성과 해석의 윤리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에 자신의 연구가 최근의 해석의 윤리나 윤리

적 해석을 강조하는 최근의 성서 해석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어떤 공헌을 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피오렌자의 해석의 윤리를 자세히 소개한다. 피오렌자는 1987년 SBL 회장 연설에서 ‘교리적-근본주의 패러다임’, ‘과학적, 실증주의 패러다임’, ‘포스트 모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현재의 해석 방법들을 구별하고 자신의 해석 방법을 ‘수사적-해방적 패러다임’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해방적”이라고 하는것은 학문적 노력들이 ‘정의와 안녕을 위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피오렌자는 7가지 ‘해석 전략’ 과정을 제안한다. 경험과 사회적 정황의 해석, 지배권에 대한 분석, 의심의 해석학, 윤리적 신학적 평가의 해석학(비평적이고 평가적인 해석 전략들), 기억과 재구성의 해석학, 상사의 해석학, 변화의 해석학(구성적인 해석 전략들). 간단히 말하면 해석자는 자신의 경험과 처한 사회적 상황에서 출발해야 하며 분석과 해석이 창조적인 변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주석가의 과제는 비평과 함께 재구성, 학문적 결과물에 대한 이론을 넘어선 성찰이 필요하다. 스제머그는 피오렌자의 해석학적 전체를 대부분 동의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재구성이 다른 학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자들에 대항한 자기 경계를 긋는 작업인가?를 묻는다.

다음으로 스제머그는 다니엘 파테(Daniel Patte)가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A Reevaluation*(1995년)에서 제시한 ‘다차원적’이고 ‘인간중심 비판적’ 해석의 과제를 자신의 해석의 윤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다. 파테가 말하는 다차원적 해석은 해석 과정이 더는 누구를 위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견해의 입장을 거부하지 않은 채 다른 이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간중심 비판적’ 해석이란 기득권을 가진 유럽-미국의 남성 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뜻한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가 파테의 두 가지 해석의 윤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자평을 한다.

저자는 6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9·11 사건도 경험하고 어린

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 상황도 접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공동체를 야만인이라고 규정짓는 그들의 종교 전통의 어두운 면을 직면해야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이 연구의 공헌은 성서 밖에서 선택한 다양한 본문들의 선택과 각 작품에 대한 분석의 결과, 각 작품이 성서의 입다 설화를 재구성하는 데 적용한 다섯 가지의 해석 전략을 밝혀낸 것 자체가 성서 설화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자평한다. 그는 이 연구가 각 작품에서 다루어진 해석 전략이 각기 다름을 보여주어 어느 하나의 해석도 충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해석들은 그 안에 위험 요소와 장점을 가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한다.

### 3. 끝맺으면서: 종합적 평가

스제버그의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은 여성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서평자의 관심을 끄는 제목이었다. 책의 제목은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필자는 이 제목을 보면서 사사기 11장의 입다 설화에서 부당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딸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성을 고발하고 힘없는 자의 부당한 죽음에 대하여 성서 외 자료들은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연구한 책이라고 추측하였다. 서론을 읽을 때까지 해도 필자의 추측은 틀리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을 주석하는 2-4장을 읽으면서 책의 제목을 통해 생겼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고스란히 확인했다. 선별된 성서 본문과 성서 외 자료들 분석은 저자가 서론에서 밝혔던 성(sexuality)에 대한 관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분석 과정이 때로는 너무 세세하여 독자가 핵심을 놓칠 수도 있을 만큼 세밀했다. 더욱이 분석의 세밀한 정도만큼 분석의 결과들이 각 자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전문적인 분석은 논의 전개의 핵심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정도로 지루한 분석 과정이었다.

저자의 분석은 입다 설화에서 네 가지의 모호성을 도출해내고 성서 외 자료들이 이 모호성을 어떻게 극복, 변화시키는지 비교하면서 그로부터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목에서 말하는 폭력성이란 무엇을 암시하는지 서평자에게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설화 본문이 보여주는 모호성이 폭력성이라고 결론 내리지만 모호성이 본문의 폭력인지 잘 모르겠다.

실제적인 분석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들었던 아쉬움은 저자가 성서 외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밝히는 상이한 재구성의 결과들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모호성 극복의 다섯 가지 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그친 점이다. 문헌 자료들을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이 내용이 있고 저기에는 없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보다는 이 문헌에는 이 내용이 왜 강조되고 빠졌는지를 밝혀내는 해석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령 초기 고대 유대 문헌은 성서의 정경성을 인정하고 이를 다시 풀어쓰고 해석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문헌들이므로 성서의 내용을 과격하게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게 된다. 반면 오라트리오와 같은 일반 문학작품은 성서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에서 종교 문헌보다 더 자유롭다. 그리고 신과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 사이의 관계나 사건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즉, 종교 문헌과 일반 문헌의 차이가 비교 과정에서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성서 외 자료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는 문헌들로 성서의 입다 설화의 재구성 과정에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문화적 관심, 철학을 반영한다. 그러나 스제버그는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해석학적 요구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한 곳은 『유대 고대사』에서 입다의 딸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성서보다 더 익명의 존재로 전략하고 있으며, 입다는 허점이 많지만 강한 남자 영웅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이다. 저자는 여기에 보이는 입다에 대한 평가는 당시 그리스의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남자 영웅들의 최고 덕목이 지혜와 경건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설명하면서, 입다는 그 덕목을 갖추지 못한 영웅답지 못한 존재로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짧게 말한다. 그럼에도 저자가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성문 제에 대해서 『유대 고대사』에서 축소된 입다의 딸의 묘사가 당대의 희랍 문화권의 여성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각 문헌 자료에서 성서 본문에 나타나는 모호성들을 어떻게 해소, 변형시켜 나가는지 가계의 상품 나열하듯이 지적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정작 해석의 윤리의 주석적 논의에 참여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각 문헌자료에서 드러나는 전략의 차이점들이 왜 생겼는지 각 작품의 시대, 즉 문화 속에서 밝혀내야 이 시대 전략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란 재구성된 성서 본문의 작품을 수용하고, 회자하며, 내재화하는 해석 공동체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분석이 차이만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은 윤리적 해석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스제버그는 스스로 자신의 연구를 평가하면서 이 연구가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준 점에서 공헌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석의 다양성을 찾아내고 드러내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자도 밝혔듯이 다양한 해석의 우위를 결정하려는 것이 그 다양성의 근거를 서로 이해하고 접목점을 찾아나가는 데 있다. 그러나 스제버그는 단순히 각 작품들의 차이점,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그쳐 자신이 서론에서 밝혔던 야심찬 시도, 성서 해석이 공공(public)에 공헌하는 실천적 목표를 시도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여성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하고 연구하게 되었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면서 정작 어떤 여성 신학적 관심이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 성찰 부분에서 이를 잠깐 시도하지만 한두 개의 언급 정도로 끝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내내 지나치게 학문적인 분석으로 끝나는 주석 과정

과 각 문헌자료들의 차이만 드러낼 뿐 그 차이에 대한 평가와 해석학적 근거에 대한 분석이 빠진 이유를 물으면서 아마도 저자는 자신의 이해 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을 암암리에 전제한 탓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물론 어느 누구도 객관적 입장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혜를 가진 연구자는 특정 이해 관계를 옹호하거나 주장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해석학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 이들에게 이러한 해석도, 저러한 해석도 그냥 다양성으로 인식되며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만족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 유럽의 백인 남성 성서 연구가들이다. 스제버그는 자신과 이들 백인 남성 성서 주석가들과 차이를 두면서 그 근거로 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성서 주석이 학문적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봉사하고 문화 속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학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성서 해석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서 해석의 윤리 논쟁에 동조하는 자신의 해석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성이 그의 연구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책의 제목을 통해 많은 기대를 가졌던 탓일까? 책을 읽어내려 가면 서 다소 실망하기도 하였고,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 속에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성서, 문학으로서의 성서가 문화 속에서 가지는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유익한 책이었다. 아울러 스제버그가 서구인으로 서구 문화에 등장하는 성서 재해석의 실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학자들도 성서가 한국 문화, 영화, 문학,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며 성서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도록 기대하게 하는 책이었다.